세계 유일 적십자 불교봉사회 설립



박추자 적십자불교봉사회 초대회장은… 1944년 경남 진해 진영서 태어나 부산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1975년 결혼해 대한적십자사에 가입, 2003년 적십자불교단위봉사회를 창립했다. 2005년 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를 창립했으며 2006년 대한적십자 부산광역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후 2008년 사단법인 불국토 특별공로상,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그대는 자비보살

박추자(76)

적십자불교봉사회 초대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8세기 말, 유럽에서 전쟁의 상병자 구호 활동을 위해 시작된 인도적 기구 적십자는 오늘날 전쟁 구호 뿐 아니라 재해구제, 질병예방, 민간인 보호 등 활동영역을 넓혀 활동하는 세계적 봉사기구다. 우리나라에서도 1905년 대한제국 때 대한적십자사가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안에는 불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다. '적십자불교봉사회'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안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단위 기구를 넘어 10개가 넘는 봉사 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적십자 불교지구협의회가 설립됐다. 불교지구협의회 소속 봉사회 회원들은 불교계 행사를 비롯해 모든 봉사현장에서 늘 적십자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우리는 불자에요!"라고 외친다. 적십자불교봉사회를 만들고 협의회까지 설립한 박추자 적십자불교봉사회 초대회장을 만났다.

효심(孝心)이 지은 인연

박 회장의 삶은 평범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시고 두 명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다. 1975년에 결혼한 후 전업주부로서 한결같이 살아왔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던 박 회장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극히 모셨던 시아버지의 타계에서 시작됐다. 박 회장에게 시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시아버지를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낸 박 회장은 슬픔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박 회장은 가족을 위해 일상을 꾸리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는 우연히 신문 광고에서 '된장 담그는 행사' 광고를 보게 됐다. 박 회장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된장으로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평소 어른을 정성스럽게 모셨던 생활 습관 때문인지 박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척척해냈다. 그런 박 회장의 모습은 금방 대중의 눈에 띄었다. 행사는 원불교에서 주최한 행사였는데, 박 회장의 진심어린 봉사 모습이 행사를 진행했던 담당 간부들의 기억 속에 진하게 남았다. 봉사를 마칠 때 쯤 적십자에서 활동하는 원불교 교도가 박 회장을 찾아왔다.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원불교 교도는 박 회장에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권유했다. 그리고 1998년 박 회장은 처음으로 적십자 봉사단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적십자불교봉사회 출범

적십자 봉사단에 들어간 박 회장은 봉사에 최선을 다했다. 원불교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심으로 활동하는 박 회장을 1년 만에 단위기구를 담당하는 운영회장으로 임명했고, 원불교 교도로 영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불자였다. 원불교 안에서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던 박 회장은 결단을 해야 했다. 20여 명의 박 회장의 불교 도반들이 봉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원불교에서 활동을 이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봉사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도반들의 신행 생활에도 지장을 줬기 때문이었다. 또, 불교 봉사 기관에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다. 여러 모로 더 이상은 불자로서의 신행과 수행 활동에 지장을 받고 싶지 않았다. 불교는 대부분의 법회가 음력에 맞춰 진행됐지만 원불교에서 진행하는 봉사 활동은 양력에 맞춰 진행됐기 때문에 신행활동에 적잖은 지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불교 관련 기관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봉사는 신행 · 수행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봉사라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의 법수행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를 아껴주던 원불교를 나와 독립을 하기 까지는 배신자란 비난도 감수해야 했고 남모를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열었을 때, 그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원불교로부터 나와 독립을 하고자 했을 때, 박 회장과 도반들은 대한적십자 부산 동래지구에 들어가야 했다. 적십자에서 바로 결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박 회장과 도반들은 묵묵하게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3년 3월 11일 적십자불교단위봉사회로 정식 출범하게 됐다.

전업주부서 봉사회 회장으로
원불교 행사 참여로 봉사 입문
적십자 봉사회 가입으로 활동
가입 1년 만에 단위회 회장
도반 · 신행 위해 원불교 나와
2003년 적십자불교봉사회 창립
200여 명 활동 대규모 협회로

"5년 만에 이룬 일이었습니다. '둘이 아니다'란 의미에서 11일로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정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씨앗으로 이 땅을 밝히고 맑게 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출범 후 불교단위봉사회는 그 규모가 점점 커졌고, 더 이상 단위봉사단으로는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50명 이상이 되자 각 단위봉사회로 나눠 구성을 조직했고 협의회로 인정받아 2년 만에 적십자불교협의회를 창립하게 됐다.

"많게는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신명나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피곤해도 즐거운 피곤함이었지요."

매월 월례회를 할 때면 회원들은 봉사원 서약을 하며 봉사정신을 거듭 새롭게 다졌다. 서약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구현하며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겠다는 스스로의 점검이었다. 봉사단은 각 복지관 및 봉사 활동에 따라 나누어 구성됐다. △하나단위회 △두리단위회 △연등단위회 △유삼단위회 △수련단위회 △광명단위회 △참사랑단위회 △정다운단위회 △자비단위회 △불심단위회로 구성됐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1〉
B4 출판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B5 문화
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